

고품질 기업 맞춤형 쌀 판로개척

익산시, 8주간 품질검사... 작년보다 5000톤 증가 3만8000여톤 생산 600억원 달성

익산시가 고품질 맞춤형 쌀 생산으로 기업 판로 개척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기업 맞춤형 익산 쌀 3만 8천여 톤 공급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주간의 품질검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 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생산단지 면적 3,850ha는 지난해 3,360ha보다 12% 증가했으며 매출 규모도 지난해 520억원에서 800억원이 증가한 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기후변화 속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CI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29개소를 비롯해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까다롭고 엄격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행정, 경영체 관계자(농협 등), 생산단지 대표, 민간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품질검사반을 2개조로 나누어 진행하며, 심사항목인 이물질(이형주 포함), 도복(쓰러짐), 잡초, 병해충, 작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원료곡을 선별한다.

앞으로 선별생산된 3만 8천여 톤의 원료곡은 CI 햇반, 하림 즉석밥, 본아이에프(분축, 본도시락 등), SFC그룹(파리바게트), 수도권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어 익산 쌀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엄격한 품질검사

를 통하여 대기업에서 만족하는 고품질의 원료곡을 선별·공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쌀 소비시장에서 농가들이 판매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CI 햇반 원료곡 공급 전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익산 향토 기업인 하림의 즉석밥 원료곡을 전량 공급하는 것은 물론 엄격한 품질관리를 서울시 노원구를 비롯한 은평구, 강북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에 갈마루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생활안전 스마트폴 CCTV 구축'

군산시 통합관제센터, 범죄·실종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

군산시가 범죄와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현재 시행 중인 실종대책은 기술적 한계로 실질적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이번 사업은 도시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산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에 그쳐 있는 상황에서 범죄 관련 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 유입되는 외부 방문객 중 범죄자와 실종자의 얼굴인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CCTV를 설치, 범죄·생활안전 취약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얼굴인식은 현행법을 준수하여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고령화 비율 2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6건의 치매 환자 실종접수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실종대책은 기술적 한계로 실질적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이번 사업은 도시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산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에 그쳐 있는 상황에서 범죄 관련 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 유입되는 외부 방문객 중 범죄자와 실종자의 얼굴인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CCTV를 설치, 범죄·생활안전 취약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얼굴인식은 현행법을 준수하여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고령화 비율 21%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지난해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내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 조문에 직접 규정이 되어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자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재난·재해 대비 민·관 상호협력 나선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 체결

익산시가 재난·재해로부터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민·관 상호협력에 나선다.

시는 24일 정현을 시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재난위기가정 지속돌봄사업 협력(이재민 성금 모금 지원, 자원봉사 및 구호 등) △평소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재난취약계층 주거개선,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해

사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집중호우 관련 일시 대피자 및 이재민 발생 등 재난 및 재해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주민안전대피에 필요한 응급구호키트 450세트, 모포(520개), 생수(3,520병), 컵라면(1,288개), 이온음료(1,280개), 초코바(1,320개) 등을 시에 지원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 6천억원의 성금과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시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집중호우 당시 민·관 협력 위기에 응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뿐만 아니라 재난 위기가정에 대한 일상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이상기후로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희망브리지는 익산에서의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시와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탄소중립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익산시의회 탄소중립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4일 문화재통합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해당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익산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고 타 지역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오임선 대표위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O)에서 그간 연구용역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원들과 함께 추진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익산시도 올해 기후행사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발생

함에 따라 기후변화를 늦추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으며, 더불어 간단한 현수막 재사용 사업부터 넷제로시티와 같은 대형공모사업까지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전반에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익산시 지역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익산형 신규사업 발굴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임선 대표위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는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안의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익산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최종보고회까지 발굴 사업들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이 탄소중립도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22회 한국강의날 익산대회' 원광대 등서 개최

익산시는 '제22회 한국강의날 익산대회'가 민경강과 금강이 흐르는 건강한 익산 생태자원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대표 이준경)와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대표 김도현교무)가 주관하여 제22회 한국강의날 익산대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원광대학교와 익산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민, 단체, 지역민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과 환경보호활동 경연을 펼치고 학술대회로 다양한 포럼과 지역사회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익산시와 전라북도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민경 강금의 강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강과 수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강하천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민간 활동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 물포럼, '생명강의 韓·日 하천포럼', '열린 생태박물관 민경강 하천포럼', '강살리기 사례 콘테스트', '익산지역

생태부어' 등 사람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메인행사 중 하나인 강살리기 사례 콘테스트에서 익산 별나라 어린이집의 '뽕지라 병아리들의 강살리기'가 33개 참가팀 중 대상을 수상해 미래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돋보였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방문의 해에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하천이 가지는 소중한 의미와 고마움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며 "수생태자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천보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